

국토부,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항공분야 첫 물꼬 튼다.

- 16일 한-파푸아뉴기니 간 항공자격시험 분야 무상지원 업무협약
... 무상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

* 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 파푸아뉴기니 항공청장(Mr. Benedict Igo. Oraka)

** CBT : Computer-Based Testing, 컴퓨터 기반의 전자시험

- 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23년 2월 파푸아뉴기니 방문 시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하였다.

* '22년 7월 인천에서 열린 제57차 ICAO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에서 요청

- 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자격증명 온라인 필기 시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자국의 독자적인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10년 CBT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자격증명 시험을 도입하여 장기간 시스템 운용 노하우와 완성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또한 '18년에는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으로 CBT 시스템을 확대하였다.

- 파푸아뉴기니의 기술지원 요청 이후 국토교통부는 파푸아뉴기니에 적합한 CBT 시스템 검토에 착수하였다.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인 국내 중소기업 (주)패스온 시스템과 협력하여 CBT 시스템을 파푸아뉴기니에 사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면서 지속 소통해 왔다.

□ 이번 협약은 '23년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아태지역 항공 선진국으로서 한-태평양 도서국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다.

○ 올해는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11월 공항 안전관리체계 현지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ICAO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중견 관리자를 국내 석사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다양한 국내 초청 교육(12개)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원 동시 진행한다. 온라인 협약식은 코로나 범유행(Pandemic) 시기 비대면 원칙에 따라 확산된 방식이지만, 이번 협약식은 다른 의미로 기획되었다.

○ 국외 방문 행사에 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저개발국가인 지원요청국의 행사 비용 부담도 낮추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룬다는 세류성강(細流成江)처럼 작고 세밀한 부분의 협력부터 항공 분야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도는 제고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 또한, 내년 ICAO 이사국 선거에서 태평양 도서국 등 개발도상국의 지지가 중요하므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항공 분야 정보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IT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항공자격증명 CBT 시스템, SMIS 시스템(Standard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국제기준관리시스템), SOMS 시스템(Safety Oversight Management System, 항공안전감독관리시스템)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팀	책임자	팀 장	박진홍	(044-201-4370)
		담당자	사무관	허준녕	(044-201-4248)
			주무관	이상일	(044-201-4256)